

정병 받침그릇(淨瓶 承盤) 살핌

高麗불화(佛畵)—수월관음그림(水月觀音圖)으로

A Study on the "Holing-Bowl(받침그릇, 承盤) for the Jung-Byoung(정병, 淨瓶)", or The Sacred Water-pot

강 순 형 문화재청

-
- I. 정병 틀(形式)
 - II. 우리나라 정병
 - III. 수월관음그림 정병 틀(形式)—받침그릇(承盤) 갖추
 - IV. 간추림
-



I. 정병 甁(形式)

그림 1, 2와 같은, 그릇(器物)들 가운데 매우 별난 꼴—생김새를 한 「정병(淨瓶)」이란 이름의 「따르게(甁, 注甁, 注子)」가 만들어져 보이고 있다. 곧, 정병이란 이름 그대로가 그 틀(형식)의 됴됨이(특징)를 지닌 그릇으로 나타낼 만큼 눈길 끄는 것이다.

바로, 그림 1, 2같은 맵시는, 『高麗圖經』, 「淨甁」쪽(권 제31. 器皿 2. 2 淨甁)에,

‘길다랗게 목을 뽑았으며, 목 위를 둥글게 덮으면서 그 위로 (다시) 길게 뽑아 세운 부리 곧, 가늘어지며 뽀족해진, 비녀나 붓같은 대롱이 세워졌다.

몸은 참외를 세워놓은 꼴로, 위가 부르고 밑이 좁은 몸매다. 어깨에 짧고 넓은, 잘록한 (귀때)부리가 또 붙어있다’

淨甁之狀 長頸脩腹 旁有一流 中爲兩節 仍有轆轤

蓋頸中間有隔 隔之上腹有小頸 象箸筆形 貴人國官寺

民舍皆用之 惟可貯水 高一尺二寸 腹頸四寸 兩容三升

(원문, 『宣和奉使 高麗圖經』, 韓國文獻研究所 編, 서울亞細亞文化社 刊, 1972.4. 167쪽)

고 밝힌 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6세기에 인도를 갔다온(求法, 661-695) 의정(義淨, 635-713)비구가 쓴 글(『南海寄歸內法傳』)에서도 이미, 그림 1, 2와 같은 것임을,

‘긴 목 위에 (다시) 두 손가락 높이로 구리젓가락(銅箸)같은 꼴의 뽀족대롱(尖臺)부리를 세우며, 어깨에도 따로, 동그란 구리돈(동전) 크기 (귀때)부리를 손가락 두 마디 높이로 붙인다.

그 두 부리의 주둥이로 벌레나 먼지가 든다면, 뚜껑을 하거나 대나무쪽(竹木), 천조각(布葉)들로 막는다. 먹는 물이 2~3되(升)나 들어가는 크기다’라 함에서 일찌기 알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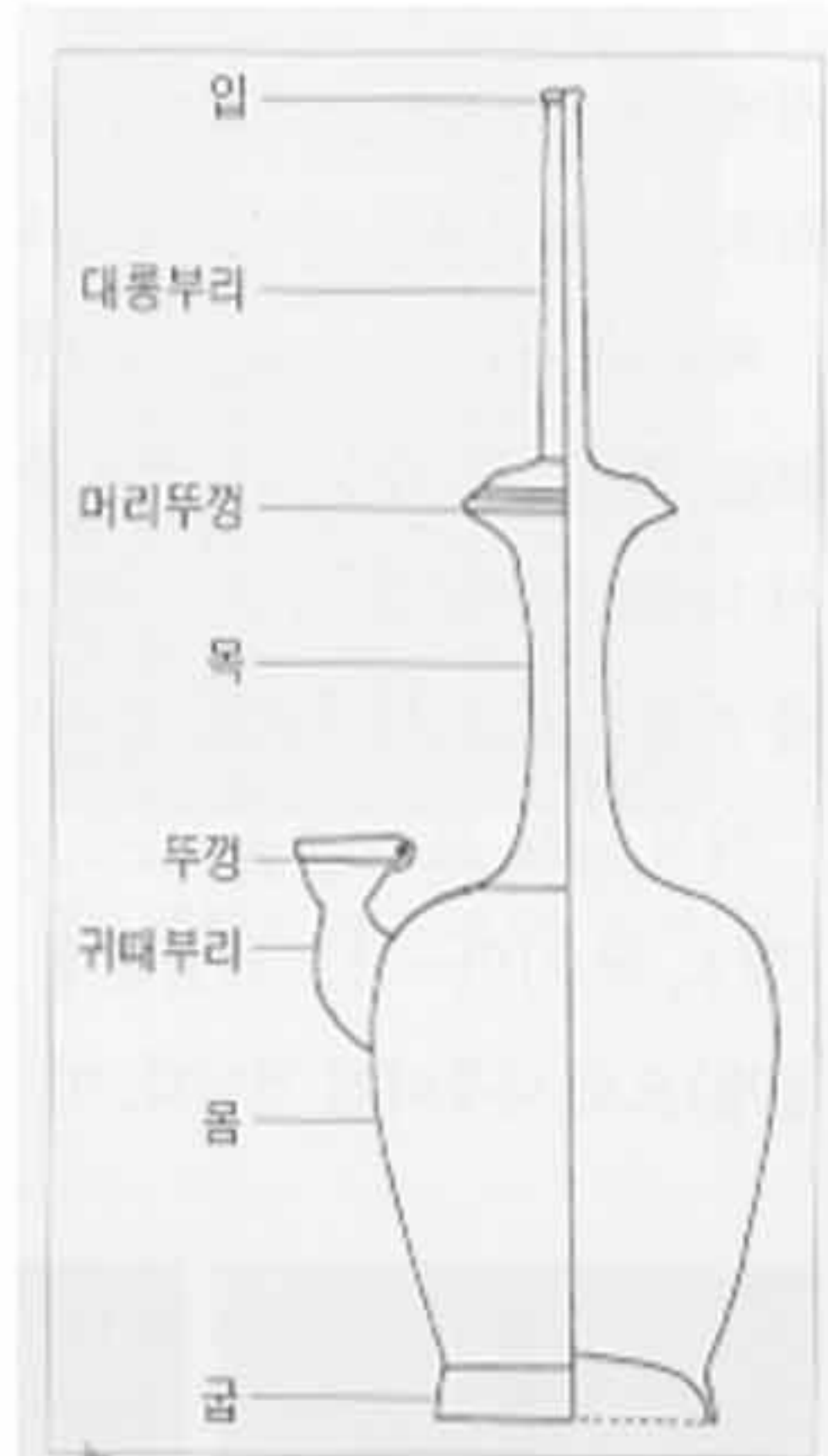


그림1. 정병 그림



그림2. 물가무늬은실박이 돛쇠정병
국립중앙박물관, 국보(92), 고려, 11~12세기

「따르게」다.

몹시도 우리 눈길을 잡는 이러한 맵시를 지닌 정병은, 의정(義淨)도 밝혔지만, 고리도 경에서도—어디서나 쓰는, 물(을 담는)그릇이라 하고 있어(貴人 國官 觀寺 民舍 皆用, 可貯水) 그 쓰임새를 곧바로 알게 된다.

바로, 정병은 이미 옛 인도서부터 먹는 물(淨水)의, 물병(淨水瓶→淨瓶)인 「쿤디카(拞稚迦, 軍持)」로, 수도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널리 쓰는 일상품인 것이었다. 이것을 불교에서 나중에 거룩(신성)한 뜻거리(기리개, 상징물)로 끌어들이어 보살, 더우기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불교상(佛敎像)의 지니개(持物)로 자리(등장)잡게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깔끔, 시원히) 정화(淨化, 깨끗게) 시켜주는, 시키는 거룩한 물(聖水, 淨水)인—맑고 깨끗한 물 곧, 「깨끗물(淨水)」이 담긴 거룩한 병(淨瓶, 깨끗병, 깨끗물병)으로 나타어진 것이다. 이 깨끗물을 감로, 감로수(甘露水, 단물, 단이슬, 단이슬물)

로 또 부르니 바로, 목마른 이를 씻어주고 채워주는 기리개(상징)로 삼아진 탓이다.

이러한「깨끗병(淨瓶)」은, 그 별난 생김새(형태적 특징) 그대로가 이름과, 한 틀(形式)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눈길 끄는 그 생김새(매우 새) 그대로가 맵시(美)를 뽐내,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들에 이르기까지 두루 실물이 만들어지고(그림 6~9) 또 불상, 불화(佛畵)에 늘 나타나고 있다. 중국서는 당(唐)부터 보이며 토, 도자, 청동 나아가 은으로 만들어짐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정병과 그 갓춤을 불화—高麗불화 그것도 수월관음그림(水月觀音圖)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 알아 보면,



그림6. 물가무늬새김 청자정병
국립중앙박물관, 보물344, 고려, 12세기 전반



그림7. 물가무늬박이 청자정병
간송미술관, 고려, 12세기 중엽



그림8. 놋쇠정병
일본 나라 범용사, 8세기



그림9. 놋쇠정병
일본 시가 흥법사, 13세기



그림3. 석굴암 범천상 정병
화강암, (통일)신라, 751(경덕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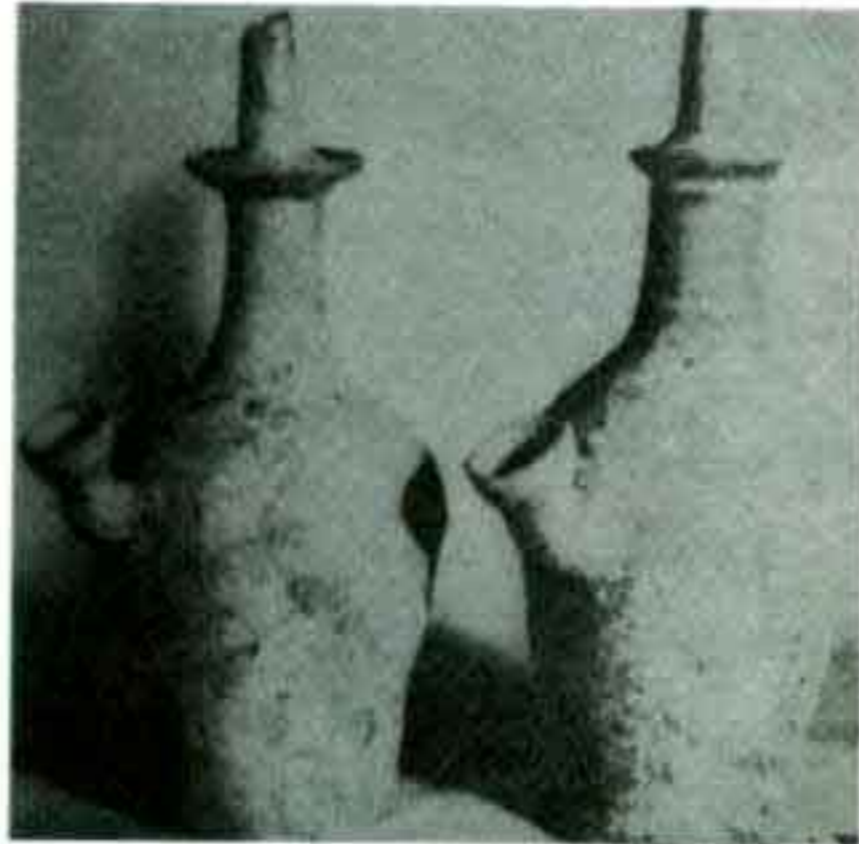


그림4. 삼척 삼화리 흥정병
고리, 10세기



그림5. 만복사 선돌부처 정병
화강암, 남원 만복사터, 보물(43), 고리, 1046~1083(문종 1~37)

II. 우리나라 정병

우리나라에 와서는 (통일)신라말 곧, 9세기말~10세기까지 오르는 흙(土器, 그림 4같은)정병과 놋쇠(靑銅)정병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상에서지만 8세기중엽(751, 경덕왕 10)인 서라벌 석굴암의 범천상(梵天像, 그림 3)이 쥐어 들고 있는 것이 이제로선 가장 빠르다 하겠다.

나아가서는, 고리(高麗)에 와서도 만복사(萬福寺터, 남원)의 부처상(石佛立像, 그림 5, 1046~1083, 문종)도 쥐고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 놋쇠(청동)와 청자의 많은 실물(50여점)까지 남아오고 있어 눈을 잡으며, 뿐만 아니라, 고리불화에서도 많이(30여점)—더

우기 수월(水月)관음그림(그림 11~15)에 나타나 있어 눈길 몇게 한다.

더구나, 이 때의 이 자료들은 작품면에서도 우리나라 나아가, 고리미술(공예)의 얼굴(대표성)이기도 하다. 곧,

①. 뛰어난 맵시(조형미)에 따른, 깔끔(정선)하고 알맞은(균제된) 나뉘(비례감)과 부피감이 마



그림14. 수월관음 그림
고리, 14세기 초, 비단색칠, 일본 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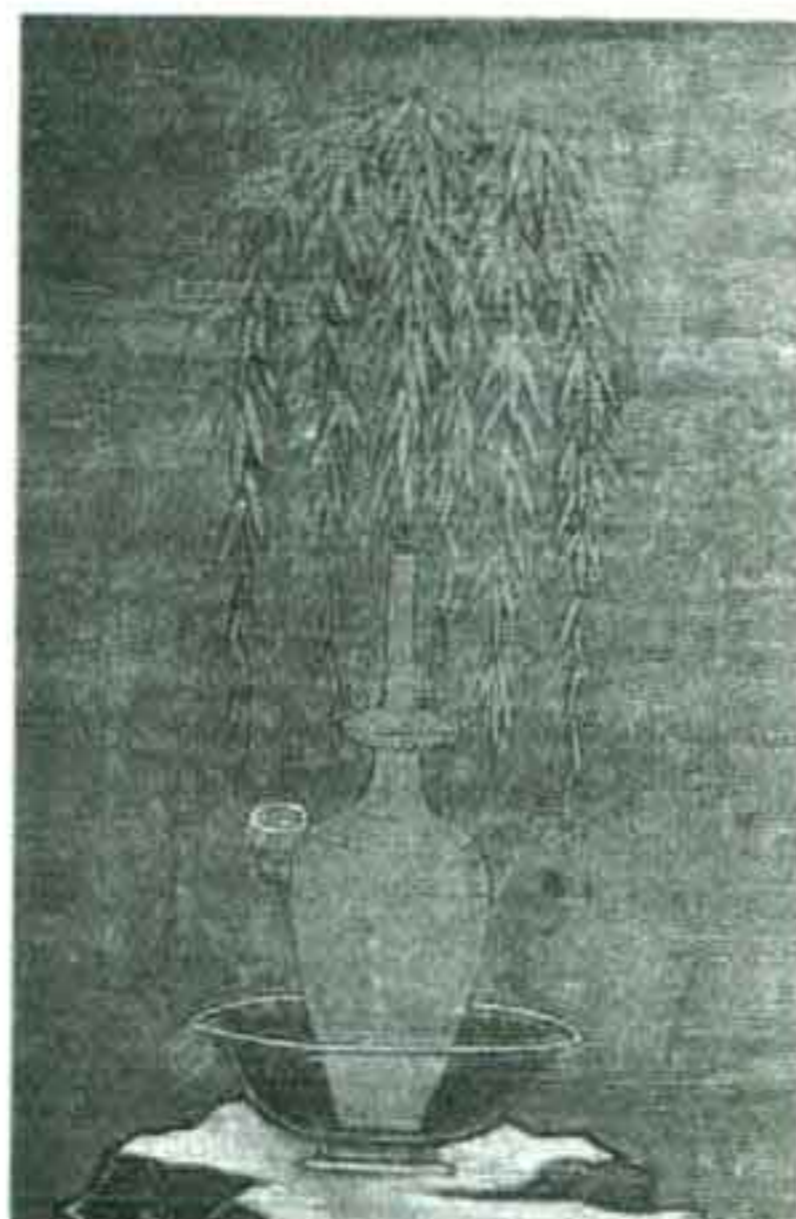


그림15. 수월관음 그림부분
고리, 14세기 초, 비단색칠, 일본 대덕사

음껏 드러났으며, ②. 놋쇠 뿐만 아니라 뛰어난 푸른사기(청자)로도 만들어진데다, ③. 몹시도 곱살찬찬(섬세)히 나타낸—자연의 그윽한 서정성인 물가풍경(水景文) 꾸밈새(意匠)의 특징을 또한, 놋쇠쪽에서는 금, 은실박이(金銀入絲, 그림 2)로, 사기에서는 흰, 검은무늬박이(象嵌法, 그림 7)치레로 베풀어 더욱 독창성을 뽐내고 있는 솜씨를 한눈에 느끼게 하는 것이다.

고리 때의 그릇에 있어서, 더우기 푸른사기(靑磁)의 따르개(注子, 긴 부리 달린 병)에서, 조롱박꼴인 표형이나 참외꼴, 죽순꼴같은 그 생김새(기형)나 무늬를 비롯한 깔끔(정선)한 솜씨와 맵시(作風)는 말할 것도 없지만 더욱 눈길 잡는 것은, 이에 딸린 「받침그릇」 곧, 「승반(承盤)」이 갖춰진 짜임새(그림 17)에 있다!

바로, 이 받침그릇(승반)이 있음으로써 더더욱 그 그릇의 됴됨이(품격)가 높아지는데다 안정성을 비롯한 쓰임새(기능성)까지 갖춰지는 것에서, 우리의 슬기가 보다 돈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데, 같은 따르개(注子)의 하나이자, 보다 더 나은 것(귀물)이라고 할 정병에는 이 받침그릇(承盤)이 실물에선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디 있었지만 하나같이 모두 없어진(결실)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없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제로서는 아직 이를 시원히 밝힐 거리가 없기만 하다.

다만, 실물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 곧, 고리불화들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그림17. 포도동자무늬박이 청자주병(注瓶)
국립중앙박물관, 고리, 12세기 후반



그림11. 수월관음 그림
고리, 13세기 말, 비단색칠, 일본 장곡사



그림12. 서구방이 그린 수월관음
고리, 1323(충숙왕10), 비단색칠, 일본 천육박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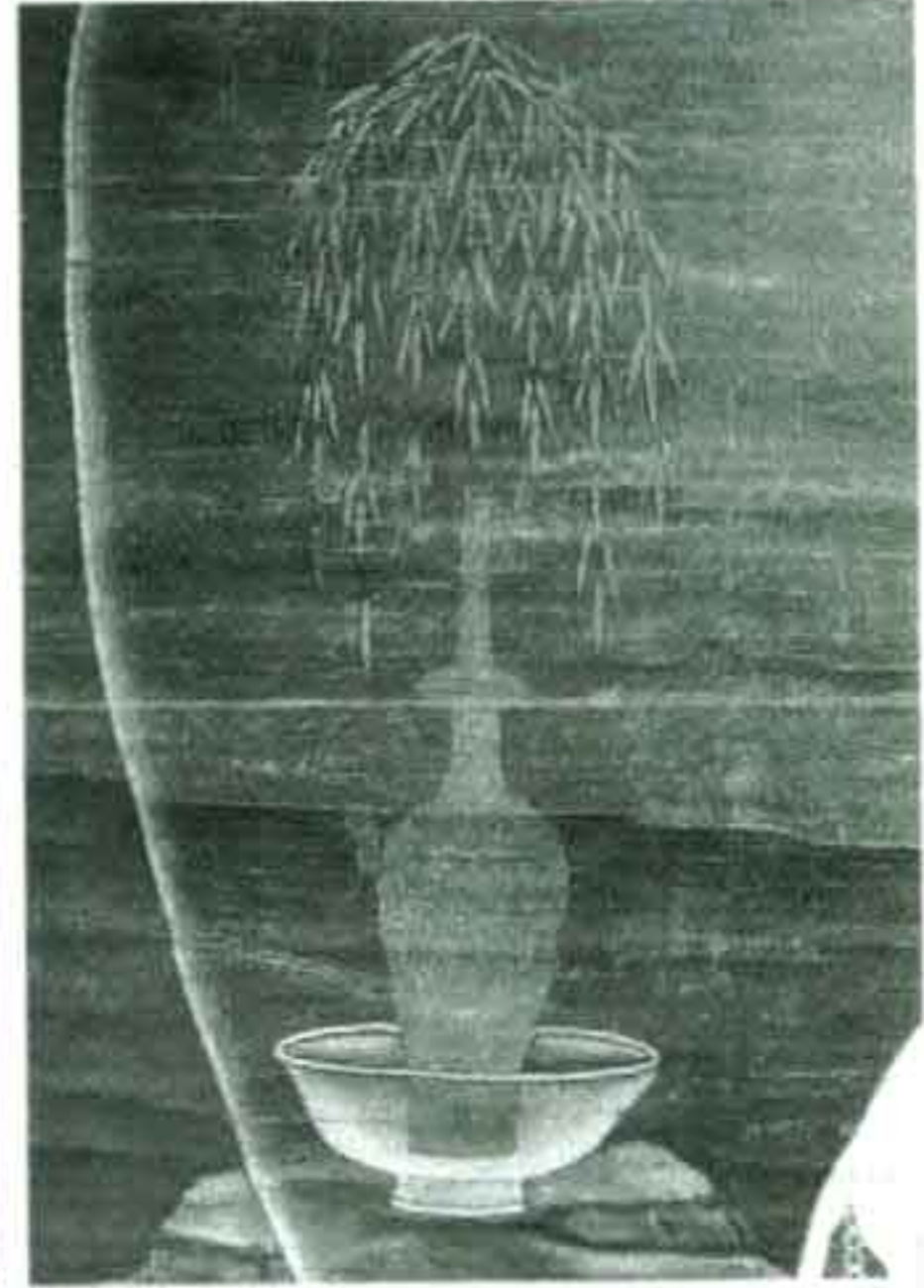


그림13. 12의 그림부분

그것도 수월관음그림(水月觀音圖)에서.

물론, 고리불화에서도 두 길(갈래)의 정병 틀(자료)이 나타나 있어 눈길 간다. 바로, 앞은새(좌상)인 수월관음그림에는 (따로) 바닥에 놓아둔 정병(그림 11~15)이 있지만 흔히, 서 있는 관음입상그림(觀音立像圖, 홀로나 협시)에 보이는—석굴암 범천같이 손(아귀)

에 정병(목)을 쥐고 든(그림 19, 22) 두 차림새이다.

여기서, 정병을 그냥 바닥에 놓았을 때에는 받침그릇이 모두 받쳐져 있으나, 손에다 쥐고 드리우는 것에는 마땅히 받침그릇을 지닐 수 없는 탓으로 받침그릇(승반)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디는 정병에 모두 받침그릇이 있는 것인데 곳에 따라 쓰고 안쓰고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쓰임새에 따른(用, 不用의) 두 길이었다는 것인가. 그러나, 살펴본 데로라면 받침그릇을 본디부터 갖춰졌겠다.

나아가, 수월관음그림이 자리잡게되는 중국의 둔황 막고굴(敦煌 莫高窟) 벽그림(벽화)



그림19. 아미타3존 그림
고려, 14세기, 비단석칠, 일본 지온원



그림22. 무위사 극락전 벽의관음 벽그림
강진 무위사, 15세기 초(1476경, 성종7)



그림10. 천복8년 수월관음 그림
국(후진), 943(출제1), 비단석칠, 프랑스 기메박물관



그림20. 신광사 오백나한
125 진보장존자 그림
비단붉은색칠,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3세기 초(1235~1236, 고종 22~23)



그림21. 신광사 오백나한 420존자 그림
비단붉은색칠, 미국 콜리블랜드미술관,
고려, 13세기 초(1235~1236, 고종 22~23)

을 비롯한 앞선(초기—당나라말 이후부터) 그림엔 아직 받침그릇이 나타나지 않아 눈길 끈다. 정병 맵시도 날씬치 못하고 땅땅한 쪽이다(그림 10).

이로 보아, 나중에 와서야(송나라—北宋 때) 몸에 지니고(들고) 다니는 것은 그렇고(없고, 그림 20), (불박이로) 바닥에 놓아두는 정병(그림 21)은 (그 기능상) 받침그릇을 갖게 되었다 하겠다.

Ⅲ. 수월관음그림 정병 물(形式)—받침그릇(承盤) 갖춤

이렇듯, 수월관음그림을 통한, 받침그릇(承盤)을 갖춘 정병의 짜임새는 우리에게 새 틀을 알려주는 거리(자료)로 중요하다. 더구나 그 승반—받침그릇은 속이 흰히 보이(드러나)는(투명한), 그릇이어서 더욱 놀랍다(그림 13, 15). 이는 유리제일 것이나 수정제도 함께 쓰이지 않았다고(잘라 말)할 수 없다(중국은 宋 때의 수월관음그림부터 나타나며, 불투명과 투명 받침그릇이 같이 보임).

그리고 이 정병에는, 빈병이 아니라(물론, 淨水는 상징으로라도, 들어있다고 봐야하며) 반드시 「수양버들(楊柳)」가지가 꽂혀있는 것도(아니면 따로 쥐고 있거나, 때문에 楊柳 관음이라기도 함) 이 그림 속의 틀갖춤(형식)이다. 곧, 정병 · (투명)받침그릇 · 수양버들가지 셋이 바로 한 세트(형식)인것!

(수양)버들가지는 정수(淨水) 곧, 감로 · 감로수 나아가 감로비(雨)에 따른 정화(淨化)와 삶(苦)의 목마름을 끌고 씻어주는 나뭇의 대행자(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쉬이, 정수(淨水)의 정병과 함께 병을 고치고(治病) 아이 점지(求子)와 순산(安産)을 주는 藥王관음으로 부르게도 되었다.

고리의 수월관음그림은 24점이 넘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점 뿐, 일본에 거의 가 있다. 모두가 고리후기 곧 14세기부터 것이다. 그린 해를 아는 것은 1310해(충선왕 2, 金祐文이 그림, 일본 鏡神社간직)와 1323해(충숙왕 10, 徐九方이 그림, 일본 泉屋博古館간직) 겨우 둘 뿐이다.

그리고, 수월관음그림의 틀(형식)은 모두 같다. 곧, 왼쪽으로 펼쳐진 바닷가 오른쪽의 바위더미(땅) 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드리운 비치고(투명) 얇은 「천의무봉」의 흰날개옷(白天衣, 白淨疊, 毛施布)을 걸친(淸淨白身) 관(세)음보살이 왼다리를 내린 반가(부)좌를 하고 살짝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몸 돌린채 자연스레 앉았으며, 앞(왼)쪽 저 뒤로 좁게 뻗어간 바위톱 위에다, (수양)버들가지가 꽂히고 속이 비치는(투명) 승반(받침

그릇)이 받쳐진, 정병을 놓아둔 틀이다.

그런가하면, 이 꼴이 그대로 뒤집힌(반대, 반전) 것도(이 틀이 사실은 앞선, 원형이다) 4점이 보는데 그 하나가 바로 가장 빠른, 위에서 말한 1310해에 그린 그것이다. 더구나 이 그림만 오직 또 받침 그릇이 없기도 하여 함께, 선(행)형(先行形)자료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받침그릇(승반)은 속 비치는(투명한), 흰빛을 비롯한 쪽빛의 대접꼴을 하고 제법 높은 굽이 있는 생김새다(그림 11~15). 호암미술관 수월관음그림(보물 926)에 서와 같은 바리꼴(바닥이 좁아지고 입술도 덜 누워, 속이 깊어 보이는 꼴)과 함께, 두가지가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그림 23. 관음 32응신 본존 그림
조선, 1550(명종5), 비단색칠, 일본 지은원

앞서 말한 푸른사기따르게 (청자(靑磁)의 실물 승반꼴(그림 17)과 바로 같은 것.

유리(또는, 일부는 수정)로 된 이러한 받침그릇(그림 16)이 오늘날 우리 뿐만아니라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그 실물 그릇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잘 깨어지기에?) 매우 아쉽고 또, 이상하다.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림 속에서만 있는 것인가. 푸른사기 곧, 청자와 더불어 빛나는 고리(高麗) 아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텐데.

나아가, 호암미술관 것을 비롯한 조선초의 승반(그림 23)은 불투명에다 흰빛이 어 곧, 흰사기—백자로 보여, 알려주는 바가 많다. 게다가, 운두가 낮아지고 넓게 퍼진 꼴이어 조선의 그릇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더구나, 승반—받침그릇의 주둥이와 굽의 테(테두리, 周緣)가 모두 금빛(테두리)으로도 돌려져 있어 놀라운데(그림 13, 15), 이는 원(元)나라 같은 때(시기)의 용천가마(龍泉窯) 청자(14세기초)들에서 보이는 청자에 금구(金口→金鉤) 곧, 금(金鉤)이나 은 또는 구리로 테를 씌우던(周緣



그림 16. 유리받침그릇을 놓아본 정병



그림 18. 금물수월관음 그림
조선, 15세기, 비단금물, 일본 서복사

의 보호 차원이기도 한) 꾸밈새와 닮아 시대의 끈을 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병의 위, 옆의 2곳 주둥이에도 금테가 돌려져 있어(그림 15) 함께 눈 끌고 있다.

정병이 그림에서는, 푸른사기(청자)인지 아니면 놋쇠(청동)인지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꽃힌 버들잎과 같은 짙은 녹색으로 나타내고 있어 청자로 봄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다 하겠다. 더우기, 화려한 꽃무늬가 뚜렷히 두드러져 보이는 걸로 보아 무늬박이(상감) 청자다.

그러나, 금물로 그린 조선 것(그림 18)은 받침그릇까지 모두, 자잘한 무늬치레로 보아 놋쇠에 금(은)실박이(銀入絲)가 된다.

그림으로 그려진 정병꼴의 틀(형식)로서는, 어깨가 처지고 몸매가 날씬해, 밑쪽이 가난해지는 말기(14세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실물 정병자료들과 같아, 제대로(시대상을) 나타낸 솜씨를 보여주어 그 값을 더한다.

IV. 간추림

이제까지 고리(高麗)의 「수월(水月)관음그림」을 끈으로 살펴본 맵자한 「정병(淨瓶, 깨 맑병)」 살펴보기 끈, 별난 꼴의 생김새—소담한 참외꼴 몸매다, 날씬한 나팔꼴 목 위에 올린 긴 대롱부리하며 어깨의 양증스런 귀때부리, 그리고 그림 속에서만 갖춰져 있는 「받침그릇(承盤)」에 따른 틀(형식)과 쓰임새들을 알아보았다. 이제, 이를 간추려보면,

1. 따르게(注子, 注瓶)의 하나인 정병은 깨끗한 (먹는) 물을 담은 그릇으로, 그러한 생김새는 바로 쓰임새 끈, 가지고(들고) 다니기 알맞게(기능성의, 잘록한 나팔꼴 목이나 물이 잘 안 쏟아지게 한 좁고 긴 대롱부리)하는 슬기에다 미감(美的感覺)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정병을, 서 있는 관음보살(像, 圖)이 손에 들고 쥐거나, 수월관음(그림)에서처럼 땅(바위)바닥에 따로 놓는 불박이의 두 갈래가 있다. 모두 조선으로까지 이어지며, 그리고 불박이에만 받침그릇(승반, 그림 11, 12)이 있게된다.

쥐는 것에는 다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슴께로 든 왼손바닥이 보이게하여 둘, 세째 손가락 사이에 병목을 끼워 드리우며(그림 3, 5) 다른 하나는, 두 손등이 보이게 배 아래로 겹쳐 모우고 밑에 놓인 오른손의 구부린 둘, 세째 손가락 사이에 또한 병목을 끼워 드리우는 것(그림 19)이 있다.

3. 어디에나 정병은 두루 쓰였으나 달리 또, (수양)버들가지가 꽃히고하여, (불교의) 삶(苦)을 깨끗이 쓸고 씻어주는 (매우 소중한) 것(상징)으로 나아갔다.

나아가, 두 손을 모아 밑으로 쥐어 드리우는 쪽의 정병에는 (기능상) 버들가지가 아예 없으나, 왼손바닥이 보이게해 권 정병 쪽에는 따로 오른손으로, 손바닥을 내보이며 엄지와 검지로 우아하게, 버들가지를 드리워 쥐고 있다.

4. 놋쇠(청동)와 푸른사기(청자)들로 만들었으나, 그림 속에선 버들잎과 같은 빛이어 청자로 보인다. 그리고 무늬는 박이 곧, 상감이다. 정병꼴의 틀(형식)도 실물자료 및 그린 때와 같은, 말기(14세기, 어깨가 처지고 부피가 적은 시대성)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5. 더우기, 그림(특히, 수월관음도)에만 보이고 실물이 없는(잘 깨어져서?) 정병의 받침그릇은 대접과 바리꼴이며, 속이 드러나(비치)는 유리(또는 수정, 그림 13, 15)로 만들어졌음이 눈길 잡는 것이다.

이러한 받침그릇(승반)은 조롱박, 참외, 죽순꼴같은 푸른사기(청자)따르개(注子, 그림 17)에 있는 실물 받침그릇과 같은 갖춤새의 틀(형식)이다. 마땅히, 조선에 와서는 안비치는(불투명) 흰사기(백자)로 바뀌어 나타난다(그림에도, 그림 23).

6. 이 받침그릇은, 잘 꾸며 높임 또는, 그저 (따르는 부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는 것을 비롯한) 받침(下座)만의 구실만 한 게 아니라, 고리도경(高麗圖經, 권 제 31. 器皿 2) 「탕호(湯壺)」쪽에 보이듯, 뜨거운 물이 쉬이 식지않게(보온)하는 찻물병(茶瓶)같은 구실(기능성)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곧, (부처에게) 차를 타(가루차, 末茶) 내는(올리는—헌다, 공양) 더운 물병(차병, 보온병)이기도 함을 나타낸다(상징).

바로 한마디로, 정병(淨瓶)→정수병(淨水瓶)→정수(淨水)→감로(甘露)·감로수(甘露水)→차(茶=淨水)→감로차(甘露茶)로 엮어짐 때문에.

정병(淨瓶, 깨말병)의, 속이 흰히 비치는(투명한)—받침그릇(承盤)과 흰날개옷(天衣)은 고리 수월관음그림의 눈을 잡는 큰 특징이다. 이는 깨끗하고 맑음(淸淨, 淨化)을 나타내는 관(세)음(觀世音), 나아가 부처누리(佛世界)의 기림(상징)을 잘 나뉘, 그 것인 것이다.

끝으로, 받침그릇의 실물이 여태 보이지 않는데, 그려낸 그림 속의 것으로 실물을 내세움(주장)은 참으로 지나침(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잘 아다시피 삼국(신라)부터 아니, 이미 청동(놋쇠)기 때부터의, 옥(수정)과 유리를 다루고, 쓸거리(용품)을 만드는 우리(의) 솜씨는 뛰어나 삼국, 고리, 조선에 이르

는 사리(舍利)그릇(舍利器)의 유리(수정)그릇을 보다시피 그리도 많이 낳고 있잖은가.

때문에, 그 빼어난 솜씨의 실물, 그것도 그 큼직한 정병의 (유리)받침그릇이 10,000에 하나라도 톱, 튀어나왔(발견되었)으면 하는, 참으로 기다리는 실낱같은 한 구석이 삼가, 이 글(을) 쓴 까닭이다.

〈도움글〉

李蘭暎, 「韓國 古代의 金屬瓶」, 『美術資料』23 (1978. 12. 국립중앙박물관), 1~21.

洪京姬, 「韓國 銅製淨瓶에 對한 研究」, (1979. 6.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姜煥靜, 「高麗 水月觀音圖像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 『미술사연구』8 (1994. 12. 美術史研究會), 3~32.

張慶姬, 「高麗 水月觀音圖의 白衣에 대한 考察」, 『미술사연구』8 (1994. 12. 美術史研究會), 33~62.

강순형, 「도자기를 발달시킨 차문화를 생각하며」, 특집—차문화, 그 발전적 인식, 『月刊 茶談』9

(1989. 9. 다담사), 60~64를 손 본 「도자기를 발달시킨 차」, 『茶中』7(2001. 9. 목포차인회), 18~22.

A Study on the “Holing-Bowl(받침그릇, 承盤) for the Jung-Byoung(정병, 淨瓶)”, or The Sacred Water-pot

: With a reference to the Goryo Buddhist *Thangka*(高麗佛畫) Painting of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Water-Moon Character*(水月觀音圖).

Ghang, soon-hyoung

Among many different types of wares, we have this amazing Sacred Water-pot(따르개, 注子) from Goryo-period(고려, 高麗, 918~1392). The stylistic peculiarity of Jung-Byoung(정병, 淨瓶) is described in 《Goryo-Dhogyoung, 고려도경, 高麗圖經》, the classical design canon. It is said, “A sharpened mouth with narrow and prolonged neck is attached upon the broad mouth with thicker and even longer neck of the pot whose body intimates to the shape of melon.”

One could find this Jung-Byoung similar to the Indian drinking water jar, *Kundika*, which has been, even today, an everyday article in houses as well as in temples. In the early Buddhist cult, the object had been adopted as a personal belonging of the *Bodhisattvas*(보살, 菩薩), especially of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관세음보살, 觀世音菩薩).

In short, the purifying character of water is met by the sacred ware to deliver the refreshing Sweet-Water(Holy-Water, 깨맑물, 단물, 단이슬물, 정수, 감로, 감로수, 성수, 淨水, 甘露, 甘露水, 聖水): For the holy purpose of fulfilling the thirst of people, of symbolizing the virtuous dharma. Thus, Ggamalkh-Byoung(깨맑병, 淨瓶), the literal Korean name, denotes purifying and clarifying water-pot to us.

Among many other Asian countries, India, China, Korea, and Japan have a profound cult of the sacred water-pot(Ggamalkh-Byoung, Jung-Byoung, 깨맑병, 정병, 정수병, 감로병, 감로수병, 淨瓶, 淨水瓶, 甘露瓶, 甘露水瓶). Therefore, this charming holy object drew much attention not only from master artisans to shape and deliver them to people but also from painters and sculptors for their endowment of the sacred images dedicated to *Buddha*(부처, 佛, 佛陀). In China, the sacred water pot emerged in the period of Tang(당, 唐, 618~907)-Period and underwent much sophistication later on, I. e., from earthenware, ceramic-porcelain, bronze, and silver.

However, the following represents a challenge to the well-known Goryo-*Thangka*(고려 불화, 高麗佛畫) Painting of *Bodhisattva Avalokitesvara* to our speculation on the Sacred

Water-pot(정병, 淨瓶). The image suggests, when examined closely, that the Sacred Water-pot has been accompanied by, or placed in, a transparent glassware(유리그릇) or crystalbowl(수정그릇)! We have no other physical proof of the existence of such a Holding-Bowl(받침그릇, 承盤), except for in this particular painting.

This Holding-Bowl would have not been a mere elaboration on the practicality of controlling the drips from the mouth of the pot. As in the chapter on Tang-ho(탕호, 湯壺), or thermal bowl, in the 《Goryo-Dhogyong》 it advises readers that this style of bowl is to be filled with hot water, and thus function as a preserver of heat in the water inside the pot. As an offering to the Buddha, the Sacred Water-pot could have been used for serving him hot tea. Hence the sacred bottle is to contain the refreshing water, the water transcends to nectar, and the nectar is prepared as a nectar tea to offer the *Buddha*.

For both the Holding-Bowl of Ggamalkh-Byoung(Jung-Byoung) and the Celestial-Robe(날개옷, 天衣) of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whose specified character is the Water-Moon(수월, 水月) in this particular *Thangka*(불화, 佛畫) painting, the transparency is essential. This is to refer to the purity and the lucid clarity of *Bodhisattva Avalokitesvara* and, at a deeper level, to refer to the world of *Buddhas*—the *Tushita*(Paradise, Heaven, Eden, 극락, 불세계, 極樂, 佛世界).

However, without the discovery of an actual Holding-Bowl, accompanied by a Sacred Water-pot, such speculation will necessarily remain hypothetical.

Nevertheless, there is an abundance of evidence of our ancient craftsmanship in jade and crystal, dating back to the Bronze Age(1000~2B.C.) in Korea. By the time of the Three Kingdom-Period(삼국시대, 三國時代, 57B.C.~935A.D.), and especially the Silla(신라, 新羅, 57B.C.~935A.D.)-Empire, the jade and crystal ornamentation had become very intricate indeed. By the Goryo-Period(918~1392) and Chosun-Period(조선, 朝鮮, 1392~1910), crystal-ware and jade art were popular in houses and Buddhist temples, whose master artisanship was heightened in the numerous *Sarira*-Cases(사리그릇, 舍利器), containing relics and placed inside *Stupas*(탑, 투, 塔)!

Therefore, discovering a tiny part of the crystal or jade Holding-Bowl for the Sacred Water-pot and casting full light on this subject, would not be totally impossible. Lastly the present article shares the tiny hope for a sudden emergence of such a Holding-Bowl.